

시대사랑

2006. 겨울

민중시울시립대학교 민주동문화

시대사랑

2006. 겨울

○ 회장인사말 이제 뒤에서 돕겠습니다.	3
○ 기획글 어쩔 건가! 어쩔 건가!	6
○ 나눔1 한-미FTA? 차버려!!!~~~	9
○ 행사이야기 시대민동산악회 소개 및 금강산 산행기	12
○ 나눔2 끝나지 않은 이야기_건대항쟁	21
○ 기획연재 집시법 시대 민주화운동 기념문집 취지문	26
○ 기획연재1 학생운동 불모지 서울시립대에 씨앗을 심은 사람들	29
○ 학번모임 소개 88청학동을 소개합니다	40
○ 사무국에서	42
○ 동문소식	44





이제 뒤에서 돕겠습니다.

강병수 | 시립대 민주동문회 회장



시립대 민주동문회 회장을 맡은 지 어언 10여년이 되어갑니다. 앞서 회장을 맡으셨던 장달수 선배로부터 회장직을 이어 받은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시립대 민주동문회는 많이 튼실해졌습니다. 90년대 학번들이 대거 가입하여 활동하고 요즈음은 2000년 대 학번의 후배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원도 많이 늘었고 소모임도 늘어서 축구회와 산악회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비 자동 이체하는 회원도 월 100여명이 넘어서 재정적 안정도 이루었습니다. 총동창회와의 연대도 충실히 진행하여 제가 부회장으로 참여하고 이사로도 4명이나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제기된 시립대 학생운동을 70년대에서 84년까지 정리하여 여러 대학과 함께 책으로 공식 출판하는 일도 마무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회원간의 소통과 친목이 깊고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름한마당과

송년회를 학번별로 돌아가면서 준비하도록 한 결과 학번별 친목도 강화되었고, 학년간 동문 연대도 깊어졌습니다. 특히 운영 체계를 학번별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꾸린 결과 자발적 참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동문회는 시립대를 기반으로 민주적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삶을 나누는 공간이며 모임입니다. 지금은 하는 일이 다양하여 운동을 계속하는 분도 있고,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도 많습니다. 따라서 민주동문회가 운동 조직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되, 운동을 하는 동문을 지원하고 회원들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분돈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88년도 민주동문회가 창립된 이후 위 방향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고 차분하게 꾸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며 회원간의 소통과 연대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회장을 맡으면서 젊은 동문들을 많이 만난 것이 저로서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삶이 더 풍부해지고 젊어졌습니다. 민주동문 모임을 하는 순간은 항상 즐겁고 생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준 김종백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식구들, 간사, 운영위원 그리고 회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후배들에게 회장을 물려주고 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동지들의 모임 시립대 민주동문회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 선출되는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0년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일은 시립대학생운동탑을 제막한 일입니다. 회원 모두의 힘을 모아 전국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학생운동탑을 세운 것은 참으로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운 시립대 학생운동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대와 더불어 민중과 함께’라고.

앞으로의 제 인생도 여전히 ‘시대와 더불어 민중과 함께’는 시립대 학생운동 정신에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회원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쩔 건가! 어쩔 건가 !

최석희 | 화공83



사람은 자고로 오래 살고 불일이다. 언제 내가 선거에 나와 보수 정치인들과 자웅을 겨룰 생각이나 했는가! 그저 별 재주가 없고,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노동현장과 그 주변을 지키다 보니, 자천 타천으로 지난 선거에서 금천구청장 후보로 출마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목표가 높지 않아서 선거패배의 아픔은 많지 않았지만, 3달이 넘는 지금은 이제는 정신 차리고 돈을 벌어 오라는 주변의 압력에 걱정하며 보내고 있다.

선거를 두고 말들이 많다. 민주노동당의 목표가 너무 높아서 그렇게 선전한 것이라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음 세 가지에서 명백한 패배였다. 먼저 울산을 놓쳤다. 울산시장은 물론 구청장 하나 건지지 못했다. 이것은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노동당이 민주당에 이어 명실상부하게 4당으로 전락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서울시장 후보 3% 득표가 그 근거다.

선거패배의 원인을 칼침 한방에(며칠 전 방송에서 그녀를 봤는데 여태껏 테이프를 하고 등장 하는데 돌아버리는줄 알았다) 패배의 원인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패배의 원인은 더 넓고 깊다. 그리고

내부에 있음으로 해서 결과가 더 아프다.

울산은 87년 이래 노동자의 아성이었다. 민주노동당은 울산에서 집권여당이였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민주노동당은 새로운 진보자치에 대한 비전을 눈으로 보여주지 못했다. ‘깨끗함’을 넘어서서 눈으로 보여주는 ‘진보자치’가 부각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더 가슴이 아프다. 누가 나왔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란 가정은 죽은 자식 부랄 만지기지만, 4년 전 이문옥 후보와 비교하면 ‘돈과 TV 토론’을 쏟아 부었지만 겨우 0.5% 3만표 정도 밖에 더 얻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이 삼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다는 비판이 많다. 이제는 적어도 비례후보라도 당선될 수 있으니까 방귀끼나 끼는 사람은 도전해 볼 만하다. 그래서 그런지 적어도 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당선 유무를 넘어서 비록 현역의원 자리라도 박차고 도전해볼 만한데, 포기하기 예는 현찰(?)이 많은 것인지 생각이 없는 것인지 배가 부른 것인지 그런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고, 당에서 세워내지도 못했다. 권력재편기를 앞두고 있는 선거라 모두들 중요하다고 했지만, 전쟁에서 이겨야하는 목표는 있었지만, 그 전략을 관철시키겠다는 철저함이 없었다.

일반 시민이 보기엔 ‘똑똑하고 말 잘하는 시장 후보’는 그저 ‘이번 아니면 다음 기회가 있는 애송이로 보일 뿐이다. 선거 공학적으로 비까번쩍하게 포장했으면 결과는 조금은 달라졌을까?

동네에서 선거운동 본부장만 내내 하다가 이번엔 떠밀리듯 후보로 선출되어 정신 없이 뛰었다. 예비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 선거일전 3달은 새벽잠을 깨고 뛰어 다녔다.

남들은 여론조사를 해서 대충은 결과라도 알고 있을 텐데 없는 돈에 여론조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무조건 필드로 나갔다. 학연과 지연, 사돈에 팔촌까지 찾아 다녔

지만, 선거 결과는 아쉽다. 한 10% 나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처녀 출전이라 참모진들은 5%, 6%를 예상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예상보다는 훨씬 많이 나왔다. 7.3%!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출마한 10명의 민주노동당 구청장 후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와서 그걸 쓸쓸한 위안으로 삼고 있다.

선거 패배의 이유로 ‘민주노동당이 자영업자, 중소기업 정책의 부재’ 혹은 ‘분배문 제만이 아니라, 진보적 개발주의’, ‘자립적인 경제정책’을 제시 하지만 사람이 정신을 놓치면 정신병자이듯 당이 화장발을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 화장발에 녹아날 사람이 또 얼마이겠는가!

흔히 정치인 하면 그놈이 그놈이라고 하는데, 후보로 뛰다 보니 그놈이 그놈들의 바닥을 봤다. 필자 스스로도 많이 부족하지만, 바닥을 보니까 선거 결과가 더욱 암담 하다. 그 분들이 또다시 4년을 해야 하니 얼마나 암담한가?

선거가 끝나고 ‘겸손히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한동안 받아들이지 못했다. 우리나라 최강의 당은 경로당 이다. 사람을 죽이든 나라를 팔아먹든 부패하고 무능하 든 상관없다.

변화와 개혁, 진보는 웃기는 짜장이다.

牛步千里(우보천리)라고 했던가. 아직은 주류가 되기 힘든 세상이니, 그래 지난 반세 기도 기다렸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백이숙제는 못 되도 그저 소처럼 우직하게 뚜벅 뚜벅 갈 길을 가야지 않겠는가! 자주와 평등세상을 향해서!!



한-미FTA? 차버려!!!~~~

박범 | 정보관리 95



제주에서 한창 한-미FTA 4차 협상이 있던 10월의 목요일.

여느때처럼 저녁무렵 FTA반대 선전전을 하기위해 역곡역에 나섰다.

시민들에게 FTA의 폐해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추억이 무엇일까?

97년 IMF, 바로 그거다!!

꼴통 ‘경제대통령’ 김영삼이 국민들의 뒤통수를 쳤던 힘들었던 시기다. 금을 모으고, 구조조정에 집집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숙자들... 목이 쉬어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안좋은 추억’을 되새겼다.

FTA는 IMF때 그나마 살아남은 정규직도 비정규직이 되거나 거리로 나앉을 것이라 겁을(?)주었다. 전철값도 오르고, 가스전기값도 오르고, 병원비에 약값이 그때보다 10배, 100배 우리들 목을 조일 꺼예요!! MBC PD수첩에서 나온 멕시코의 노점상과 노숙자들을 떠올려 보슈!! 하하 그때 지나가던 시민들 서너명이 서명대로 발길을 옮긴다. “전철값 오르면 안되지...”

협상을 한다는 대표단 농들!!!

김종훈과 김현중. 미국의 그늘에서 찌꺼기를 받아먹고 아부-굴종하는 친미파들이다. 애초부터 협상이란 없다. FTA는 미대표 커틀러의 지도를 받는 수업시간이자 요식행위이다.

4대 선결조건. 스크린 쿼터의 축소와 미국산 미친소의 수입재개, 미제 비싼 의약품만 사먹도록 의약품값 재조정안의 유예, 미국산 자동차에 맞춘 배기가스 규제안의 완화... 부시에게 잘보여서 협상을 구걸하기위해, 비장의 카드랄 수 있는 핵심쟁점안을 모두 들어주었다. 도대체 뭘 가지고 협상을 한다는 건지?

한미FTA, 로드맵, 전략적유연성 그리고 평택미군기지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에서 보듯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 강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에 맞게, 각 국가의 정치군사-경제-문화를 일치시켜 수탈과 대미의존도를 높여서 준식민지로 만들려는 전략이다.

우리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법,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등 다양한 법/제도를 통해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노사관계로드맵과 비정규직 개악안은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고 '전국민의 노예화'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죽으란거다.

여기에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알짜 공기업의 민영화는 뽀~~~~너스!!!

우리나라를 일본처럼 미국의 '행동대장 길용아~~~~잉'로!!!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은 세계 어디든 우리나라를 분쟁지역에 개입시켜 '효율적인 폭력'을 행사하기위한 기반다지기 작업이다. 평택미군기지확장도 대중국 견제

와 세계지배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의 안보와 이익이 아니라 철저히 부시형님의 이익을 위해서다.

제2의 을사조약.

결국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로드맵-평택미군기지확장은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주며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일관된 흐름을 강화하는 것이다. 씁쓸하게도 예전에 농담처럼 얘기했던 성조기의 '54번째 별'로 말입니다^(52, 53번째는 일본과 이스라엘이 아닐까요? ...**).





{시대민동산악회 소개 및 금강산 산행기}



민동산악회 개요

본 산악회의 공식 명칭은 “서울시립대학교 민주동문회 산악회”이며 약칭은 “민동산악회”로 하였다. 주제어는 “즉시 해결”이고 구호는 “다함께 조국의 산하를 느끼자”이다. 회원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필요사항을 합심하여 즉시 해결하여 함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자는 취지에서 정하였다. 대표색은 밝은 주황이다.

임원진으로 고문단은 산행지도고문(장달수), 운영고문(강병수), 운영고문(전영문), 역사문화고문(조성호), 복지여성아동고문(윤윤숙), 섭외고문(이재경)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단으로 회장(김승배), 등반대장(윤현종), 등반부대장(김성호), 간사(김대영), 사진편집기자(김기웅)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은 현재 총 34명이며, 2005년 10월 창립산행을 시작으로 2006년 11월산행까지

총 13차에 걸친 산행을 하였으며, 1주년 기념으로 금강산을 다녀 왔다.

정회원 준수사항으로 가입신청서 작성, 5회이상 무단불참 금지, 회원경조사 참석, 월회비 1만원 납부, 1인이상 회원 추천 등을 두고 있다. 임원선출기준은 월회비납부, 3회이상 산행 참석, 3인 이상의 추천, 모범적 산행참여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산행일정은 매월2째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10시를 일반산행일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1박2일일정으로 원거리산행을 계획하고 있다.

특징적인 사항으로 등반대를 분리운영이다. 중턱등반대라 하여 초행자, 주당, 어린이 동행자, 기타 사정으로 정상까지는 가지 않고 중턱쯤에서 곡주 등을 마시는 팀과 중턱등반대의 지원을 배경으로 빠른 속도로 반드시 정상을 정복하는 정상등반대가 있다. 효율적인 운영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산악회는 시립대 민동 산하의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한 조직임을 자부하며, 앞으로 민동의 발전과 회원들의 우의·가족애 증진, 건강(육체, 정신)증진 나아가 사회와 국가 발전에의 기여 및 참여를 목표로 열심히 활동할 것을 다짐하며, 많은 민동동문들이 참여하여 함께 조국의 산하를 느꼈으면 한다.

- 등반대장 윤현중 -

금강산 산행기 하나.

두달여를 준비한 산행이었다. 결과는 बे리 굿이다. 회원들 모두가 매우 만족스러워 했다. 민동산악회 창립 1주기 기념과 평화정착을 위한 취지를 내세웠으니만큼 대충 할 수가 없었다. 7차에 걸쳐 준비모임도 가졌다. 준비과정에는 북한큰물피해돕기모

금운동도 하였다. 모금액 384,000원을 산행 전날 한겨레통일문화재단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출발 일주일 전쯤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산행이 괜찮겠느냐고 걱정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별다른 동요가 없었다. 오히려 꼭 가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들갑 떨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문제가 곧 풀리겠구나 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강한 요동은 때론 얽힌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도 하니까. 한반도문제가 해결되려면 한번은 큰 진통을 겪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온 것뿐이었다.

⇒ 10.13(금) 21시30분, 차에서 먹을 간식을 준비해 가지고 윤윤숙고문님과 함께 일찌감치 덕수궁 앞으로 나갔다. 다들 일찍 나오셨다. 처음 보는 분들도 있었지만 참 반가웠다. 어려울때 한마디 불안도 없이 나와 주어 고맙기도 하였다. 황인상 선배님이 배웅나와 주셨다.

⇒ 10.13(금) 22시30분, 버스가 출발했다. 간식과 맥주 등을 마시며 얘기를 나누다 하나둘씩 잠에 빠져들었다.

⇒ 10.14(토) 03시30분, 고성에 도착했다.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다. 일부는 차에서 일부는 식당 방에서 5시까지 잠을 잤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5시에 아침밥을 먹었다. 잠결에 먹은 보리밥비빔밥이었지만 괜찮았다. 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사진 찍고 담소를 나누는 사이에 여명이 밝아왔다. 여명에 일렁이는 파도가 새벽 공기의 신선함을 더해 주었다.

⇒ 10.14(토) 06시30분, 차에 올랐다. 핸드폰 수거, 소지불가물품 점검, 수하물표 작성
성이 있는 후 출발했다.

⇒ 10.14(토) 07시, 남측출입사무소에 도착했다. 건물이 꽤 규모가 컸다. 세관검사
등 입출경수속을 밟았다. 외국에 나가는 것과 동일한 형식을 밟았다. 외국 가는
것도 아닌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 10.14(토) 08시, 금강산 셔틀버스로 차량을 바꾸어 탔다. 드디어 금강산으로 향했
다. 셔틀버스에는 현대아산측에서 고용한 안내조장이 한명씩 배정되었다. 친근
한 스타일의 청년이었다. 능숙하게 주의사항을 알려주었고 편안하게 해주려 노
력하는 모습이었다. 통일전망대를 지나 남측분계선을 통과하였을 때는 웬지 모
를 안타까움이 밀려들었다. ‘50여년 동안 아무도 밟지 못했던 땅(비무장지대)을 여
러분이 통과하고 있다’는 안내조장의 멘트에 분단의 아픔이 가슴 한켠을 비집고
들었다. 북측분계선을 통과하자 북측의 호위차량이 선두와 후미에 붙었다. 감
시라기보다는 귀빈안내차량이라 여기기로 했다.

⇒ 10.14(토) 08시20분, 북측출입사무소에 도착했다. 수속을 밟기 위해 차에서 내리
는 순간 우측에 거북의 등 같이 생긴 야트막한 산이 눈에 들어왔다. 여정을 카
메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담아가고 있던 나는 자연스럽게 셔터를 눌렀다. 그런
데 갑자기 고함소리가 들렸다. 언제 보았는지 북한병사가 달려와 카메라는 압
수해 갔다. 그제서야 나는 사진촬영금지구간임을 눈치챘다. 일순간 우리 일행
은 긴장했다. 차량 안에서 뿐만 아니라 금강산 온정각까지의 모든 북측구간이
사진촬영이 금지영역임을 몰랐다. 남측출입사무소에서는 출발 전 기념사진을

찍은 터라 북측에서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했다. 처음에는 사진기를 몰수한다고 했다. 몰라서 그랬다고 한번만 봐달라고 사정하자 돌아갈 때 벌금 100달러(10만원)를 내고 가라며 여권을 압수해 갔다. 안내조장이 옆에서 거들어주어 힘이 되었다. 벌금감액을 시도해 볼테니 편안히 여행하라고 귀엣말을 한다.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다.

⇒ 10.14(토) 09시, 금강산 온정각에 도착했다. 현금카드를 충전하고, 약간의 간식을 사들고 다시 만물상코스행 셔틀버스로 옮겨 탔다. 이번에는 순수한 이미지의 여성안내조장이 우리를 맞아주었다. 온정각에서 만물상코스 입구까지 상당한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했다. 금강산의 절반정도는 차량으로 하는 것 같았다. 안내조장은 가는 길에 나타나는 명소에 대해 전설을 섞어가며 재미있게 안내를 하였다. 침착하면서도 똑똑하고 노래까지 잘 하는 만능여성이었다.

⇒ 10.14(토) 10시, 셔틀버스에서 내리자 북한여성이 우리를 맞아 주었다. 코스에 대해 안내해 주고 있었다. 특히 이후부터는 유료화장실밖에 없다는 점을 안내조장은 친절히 알려주었다. 우리는 삼일포 일정을 포기하더라도 만물상을 크게 도는 코스로 택하였다. 천선대를 거쳐 망양대로 가기로 하였다. 본격적인 산행에 앞서 화장실도 다녀오고 맛있어 보이는 감자떡도 좀 샀다. 산에 들어서자마자 기암절벽들이 수직, 아니 그 이상의 각도로 우뚝 서 있었다.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 같았다.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붙어 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다. 연신 셔터를 눌러댔다. 한 컷이라도 좋은 장면을 더 찍기 위해 애를 썼다. 천선대에 도착하자 만물상의 전형적인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그런데 만물상이라는 봉우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코스 전체를 만물상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

기 와서 알게 되었다. 천선대에서 망양대를 향해 가는 코스는 매우 험난했다. 통천문을 통과하는 철계단은 정말 수직상태였다. 어르신들은 오르기 어려울 것 같았다. 험난한 코스를 지나자 더 이상 고을 수 없는 단풍나무 숲이 나타났다. 그곳에서 쉬었다. 단풍 속에 파묻힌 우리 일행은 한참을 즐겼다. 사진도 찍고 맥주 한 모금 마시고 다들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었다. 자연은 우리 일행을 오랫동안 사귀어 사람처럼 만들어 주었다. 망양대에 도착했다. 바다를 바라볼 수 있어 망양대라 한단다. 제1망양대에서 준비해온 프랭카드(조국은 하나다 가자 금강산으로)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 북측 안내원이 사진을 찍어주며 우리 산악회에 관심을 보였다. 우리도 준비해온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답례를 하였다. 제3망양대까지 가서 바다를 본 후 하산을 시작했다. 하산길에 만난 천진난만한 다람쥐는 잊을 수가 없다. 손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도토리를 까먹는 모습을 정말 앙증맞았다. 뺨글뺨글 돌러가며 현란하게 껍질을 까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참을 지켜보다 너무 늦는다는 안내원들의 채근에 정신이 들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천진난만한 다람쥐를 보며 때 묻지 않은 북녘산하가 느껴졌다. 2시가 되어서야 산행이 마무리 되었다. 북한산채취페로 점심을 먹고 일부는 온천을 하고 일부는 쇼핑을 하였다.

⇒ 10.14(토) 16시, 온정각을 출발하였다. 잠시 후 북측출입사무소에 도착하였다. 나는 맨 뒤에 수속을 해야 했다. 조장의 작업이 통했는지 벌금 30달러(3만원)만 내란다. 기뻐다. 돈을 아껴서라기보다는 역시 여기도 사람 사는 동네구나 하는 느낌 때문이었다. 약간의 긴장마저 우리 산행의 양념이었다. 벌금증서를 끊어주며 기념품이라 여기고 잘 보관하라는 북측사무원의 농담이 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담아 주었다.

⇒ 10.14(토) 22시, 서울에 도착했다. 차안에서는 북한의 들쭉술(30도) 덕분에 다들 단잠을 잤다. 피곤한 줄도 모를 만큼 좋은 산행이었다. 내년에는 백두산에 도전 하잔다.

사기충천 민동산악회 파이팅!

- 등반대장 윤현종

금강산 산행기 둘.

가을 하늘 높고, 물이 맑아 떠나고 싶었다.

지친 몸엔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싶어 떠나고 싶었다.

금강산으로!!

연일 신문지상을 뒤덮고 있는 북핵문제를 안주 삼아 이 산행을 통쾌하게 즐겨보고 싶었다.

10월13일 밤10시 덕수궁 앞에서 금강산 여행은 시작되었다.

깜깜한 도심을 가르고 새벽 3시 반에 고성에 도착, 새벽 5시에 보리비빔밥으로 아침을 먹었다. 아침7시, 출입사무소로 출발하기 전에 관광증을 수령 받고, 핸드폰을 몰수당하고, 카메라 망원경에 대해 교육받으니 북녘 땅으로의 출발이 실감났다. 8시, 남측출입사무소를 출발하여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녘 땅에 들어섰다.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난 것은 금강산 일만이천봉의 막내 봉우리인 구선봉이었다. 거북이 등딱지 모양으로 커다란 바위에 새끼 바위들이 납작납작 엮드린 돌산이다. 이곳에서부터 온정각까지는 사진촬영금지구역이다. 위반시 카메라 몰수, 반성문 작성, 벌금 100불을 내야 하는 곳이다. 들어가기가 까다롭다고 생각되었다. 4시간을 통과절차를 밟는데 소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했다. 긴장되고 약간 짜증도 나고 그러면서도 신비롭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북녘 땅을 열심히 보게 하는 구간이다. 추수철이라 통행로 너머로는 누런 들판에서 학생과 주민들이 바쁘게 가을걷이를 하고 있다. 집들은 한결같이 스텔트 지붕의 비슷한 모양이다. 간혹 자전거를 타고 가는 주민도 보인다. 6~70년대 남측 농촌의 모습이다. 잠깐이나마 북한의 실생활 모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었다.

9시, 금강산 온정각에 도착했다. 온정리는 남측이 지은 온정각휴게소와 북측의 금강산호텔, 옥류관, 서커스공연장, 온천이 모여 있는 금강산등반의 베이스캠프 같은 곳이다.

만물상은 해발 1041m의 망양대를 중심으로 충암절벽과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그야말로 만물의 모든 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코스는 만상정 → 삼선암 → 칠층암 → 절부암 → 안심대 → 하늘문 → 천선대 → 망양대로 약 3km정도의 거리로 왕복 3~4시간 정도 소요된다.

금강산은 계절마다 고운 옷 갈아입기 시합을 한다. 봄에는 금강, 여름에는 봉래, 가을에는 풍악, 겨울에는 개골산으로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는 가을의 풍악산의 진수를 맛보았다. 일행 중 한명이 '금강산 단풍은 장미꽃보다 빨갛다'고 외친다. 옛 선인들은 금강산의 산수를 보며 정신수양을 했다고도 한다. 금강산은 신생대의 지각활동에 의해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이라 바위의 모습들이 일품이다. 보는 각도에 따라 모습과 느낌이 천양지차다. 김삿갓 시인은 '금강산의 웅장함은 글로 담

아 낼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안심대를 거쳐 하늘문을 통과했다. 그리고 곧 천선대(해발884m)에 도달했다. 기암절벽을 오르락 내리락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어느덧 망양대에 도착한다. 금강산에서 푸르른 동해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다. '오늘은 동해바다에 안개가 서려 있어 신비한 맛이 느껴진다'고 북한환경관리요원이 한 마디 보탠다.

'가자 금강산으로! 다함께 조국의 산하를 느끼자!' 민동산악회의 주옥같은 문구만이 지금 이순간을 담보할 수 있음이다.

구룡연 골짜기를 둘러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하산한 후 늦은 점심식사를 하였다.

3시40분, 짧기만한 당일여행일정을 마무리할 시간이다. 북한은 불편하지만 나의 조국의 한쪽임을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다.

금강산은 천연기념물이다. 금강산은 우리 민족의 얼이요 혼이다. 왜냐하면 八功德水(달고 차고 맑고 가볍고 깨끗하고 냄새 없고 색이 없고 마셔도 탈이 없는 물)이기 때문이다. 팔공덕수로 목욕하고 우리 민족 모두가 청정함을 얻는 그 날은 꼭 오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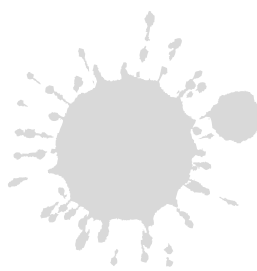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되는 민족통일의 전초기지임을 잊지 말자.



- 의정부에서 똥파리 이재경

建大항쟁68시간 50분 '79.3.24~31

끝나지 않은 이야기



김승배 | 경영83

건대항쟁이 어언 20년, 청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대초의 열정에 불타던 청년이 40이라는 불혹의 나이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간의 세월도 변했고 우리자신도 또한 변했습니다.

건대항쟁은,

이념적 급진성과 조직노선상의 취약함 그리고 정세에 대한 인식의 불충분함으로 정권의 가혹한 탄압으로 끝이 났지만 민주화를 위한 학생운동의 희생과 투쟁의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대항쟁은,

애학투의 실천이념으로 민족자주, 자립, 민주화, 조국통일을 제시하며 기존의 이념적 혼란을 불식 시키고 한국 변혁운동의 기본적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고역같은 노동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하늘과 같은 인간의 존엄한 지위와 모든 만물을 생하게 하고 다스리는 영험한 능력과 천지와 하나되어 영생하는 사상을 잉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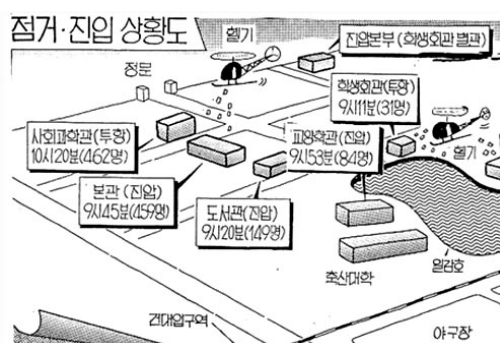
자주와 민주와 통일이 실현되는, 모두가 사회의 주인으로서 소중한 생명발현의 노동을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향수하는 사회 말입니다.

맑시즘이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인간에 대한 연민이 그 기저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자료들만을 취하여 세계관을 완성 시켰으며, 영국의 자본주의만을 사회발전의 전형적 모델로 하여 자본주의를 분석하였으며, 서양의 이분법적 사고의 틀 속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유럽중심의 세계관과 혁명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물변증법또한 유럽중심적 세계관을 선전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이분법적 사고를 고집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고전주의적 기독교를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사람과 그리고 기독교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 역사와 사회를 착취자와 피착취자로만 해석하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우리시대의 운동은 이분법적 사고의 틀을 깨고 변증법적 통일이 필요함을 절감하며 공동체적 정의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이컨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네가지 종류의 상상(인간이 잘못 가질 수 있는 거짓된 개념과 환상)을 말합니다.



종족의 상상, 동굴의 상상, 시장의 상상, 극장의 우상은 인간이 쉽게 빠지기 쉬운 오류의 가능성과 타성을 지적해 줍니다.

참된 철학의 역할은 우상을 파괴하고 동굴의 어둠으로부터 탈출하게 해 줍니다.

지금도 진행중인 자국, 민족, 통일의 거대한쟁문,

우리에게 평화를!

인간의 본성, 인간의 단계(위상, 의식의 발달수준), 인간의 감성에 기초한 대안체계를!

자주, 민주, 통일이 만개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민주주의의 성숙을 통하여, 인민의 복리가 증진됨을 통하여, 그리고 의식의 각성과 함께 오리라 믿습니다. 의식의 각성은 종교의 순기능과도 통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지적, 영적 자라남에 관한한, 그야말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조국의 통일은 먹고 먹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되기 위하여, 어느 저자의 말처럼, 현재의 남과북을 그대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으로 왜곡된 제도와 이념과 의식을 반성하고 새로운 인간적 심성의 토대 위에서 한결음, 한결음 나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없는 현실은 무의미하고, 현실없는 이상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천년을 살 것처럼 계획하고, 하루 살다 죽을 것처럼 실천합시다.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 연합 발족 선언문

1.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 연합 발족 선언문

- 애학투의 투쟁목표를 천명하고 과거 투쟁조직의 오류를 극복하는 것에 대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1) 애학투의 투쟁목표

하나,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분쇄하고 그 앞잡이 전두환 군부독재를 타도하여 민족자유와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한다.

둘,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침략을 분쇄하고 민족의 자립화를 이룩한다.

셋, 전두환 일당의 독재정치를 타파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이룩한다.

넷, 한반도의 분단구조를 철폐하고 한민족의 영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한다.

다섯, 우리 4천만 민중의 민주적 권익을 옹호하고, 교육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이룩하며 진보적인 교육제도를 쟁취한다.

여섯, 우리 4천만 민중의 민주적 권익 쟁취투쟁에 적극 동참한다.

일곱, 모든 민족 민주세력과 광범히 연대하여 함께 투쟁한다.

여덟, 세계의 평화를 옹호하며 제국주의의 모든 호전적 침략을 분쇄한다.

(2) 과거 투쟁조직의 오류를 극복하는 선언

“지난 85년 전학련, 삼민투는 백만학도들에게 일방적으로 따라 줄 것을 강요하여 고립되어 버렸으며 진정 우리 백만학도 모두와 함께 부대끼며 살아야 하는 대표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폭력적인 투쟁에만 매달려 스스로 고립됨으로서 적들의 탄압에 그만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애학투는 이러한 과거의 오류를 극복하고자 대중적인 공개투쟁 기구로서의 애학투의 위상과 그 조직원칙을 다섯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 애학투는 일부의 학우들 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전체 애국학도의 단체이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단위를 구성하여 그곳에서 민주적 과정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로서 지도부를 구성한다.

둘, 민주집중제의 일반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셋,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에 대한 공개적 논쟁을 통하여 강력한 사상의 통일을 이룩한다.

넷, 행동통일의 원칙을 지키고 그 전제하에 비판할 점을 과감히 비판한다.

다섯, 작은 차이를 내세워 분열을 초래하는 자세를 척결한다. 이러한 원칙을 제시하며 한편으로 애학투에 불참한 ‘제헌의회 소집’을 주장하는 학우들에게 단결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80년대 전반기 학생운동 기념문집 출간 선언문

우리는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박정희 유신 독재에 이어 불법으로 정권을 찬탈하여 광주민중을 학살하고 온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총칼로 압살한 전두환 군부독재정권에 맞서 온몸으로 이 땅의 민주화를 지키고 이루기 위해 싸워왔다.

우리의 투쟁은 직접적으로는 70년대 긴급조치 시대의 민주화운동의 선배들의 투쟁 정신을 계승한 것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동학혁명과 3·1운동 그리고 일제하 독립운동의 정신 및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와 통일 그리고 민중들의 인간적인 삶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였다.

돌아보라! 80년대 초반의 극악무도한 전두환 군부독재의 만행에 맞서서 젊은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피 흘리며 장렬하게 싸우던 장면을! 전국 대학의 수많은 학생들이 집시법이라는 악법에 의해 징역살이를 해야 했고, 일부는 군대에 강제로 끌려갔으며, 일부는 의문사로 죽어갔으며, 일부는 꽃다운 목숨을 민주화의 제단에 바쳐야 했다. 이 땅에 면면히 내려오는 자유, 민주, 독립, 평화, 인간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시대 젊은이가 짊어져야 할 소명을 회피하지 않고 맞서서 기꺼이 역사적 책무를 다한 아름답고 성스러운 투쟁 아니었던가!

우리의 투쟁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우리의 투쟁은 87년 6월 항쟁으로 빛을 발하여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의 초석을 깔 수 있었으며, 세계 최초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근본이 되었다고 감히 자부한다.

이제 우리의 투쟁은 역사가 되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진정으로 기록한 글과 자료가 없기에 우리 손으로 우리의 투쟁의 기록을 남기려 한다. 왜곡된 1단짜리 신문기사 혹은 군부독재의 주구들이 작성한 검찰 조서나 판결문에만 우리의 투쟁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훗날 80년대 초반을 기록하는 역사가를 위해 우리는 우리 투쟁의 진실을 겸손하게 남기며, 진실만을 기록할 것을 후대의 역사가에게 감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투쟁은 몇몇 투쟁가의 것이 아닌 함께 했던 당시 학우 대중들의 것이며, 우리들의 부모님의 것이며, 지지를 보내주던 민중의 것이며, 조국의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록은 70년대 긴급조치 시대의 투쟁의 기록에 이어받는 계승 사업의 일환이며 앞으로 전대협·한총련 세대에게도 이어져서 기록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최근 사회에서는 우리 시대의 투쟁과 투쟁에 떨쳐나섰던 자랑스러운 동지들을 낱아빠진 이데올로기 색깔로 덧칠을 하면서 폄하하려는 시도가 횡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의 투쟁은 역사의 것이며 이미 역사가 되었다. 우리의 투쟁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으로 이어져 강고한 기층 민중운동의 뿌리를 이루었으며, 시민운동 평화운동 생명운동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또한 그 시대 어려움을 뚫고 투쟁의 전선에 떨쳐나섰던 수많은 동지들은 아직도 현장운동에서, 정치권에서, 언론계에서, 학계에서, 교육계에서, 출판계에서, 문화계에서, 시민운동 진영에서, 생명평화운동 진영에서 그리고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헌신적으로 살아 가고 있음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는 체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투쟁과 우리 시대의 민주화운동가를 폄하하는 것은 역사를 돌이키자는 반동적 행위이며 국

민을 모독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경고한다. 정치적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우리 시대 아름다운 투쟁과 투쟁의 일선에 나섰던 동지들을 폄하하고 비난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음을 경고하며, 국민들도 그러한 책략에 결코 넘어가지 않을 만큼 성숙하였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더불어 우리 시대 민주화의 대의를 걸고 지금 이 시기의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일부 동지들 역시 항상 겸손하게 헌신하며 책임을 다하여 나머지 대다수 동지들이 함께 비판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혹시 개인 또는 작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하면서도 마치 그 시대 대의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행하는 동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속히 그 대의의 깃발을 과감히 내리는 것이 역사 앞에서 동지들 앞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길임을 명확히 밝혀둔다.

이제 우리는 이 책을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시다 먼저 산화해 가신 수많은 선배 동지 영령 앞에 감히 바치고자 한다. 먼저가신 님들이야말로 이 책의 진정한 주인공이며 저자라고 믿는다. 또한 함께 했던 동지들 중 당시 투쟁의 후유증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동지에게 가장 먼저 이 책을 바치며 함께 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책을 발간하면서 아직도 투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 땅에 사는 민중들이 진정 자유롭고 평화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날까지 우리 투쟁 정신을 잊지 않고 사회 곳곳에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06년 12월 8일

80년대 전반기 학생운동 기념문집 출간위원회 일동

기획연재 1부

학생운동 불모지 서울시립대에 씨앗을 심은 사람들

강병수 | 경영학과 79학번, 시립대 민주동문회장, 현 한겨레신문사 교육사업부장

들어가면서

79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시립대학에 입학하였으니 올해로 벌써 27년이나 되었다. 혈기를 가진 젊은이로서 시대와 불화하여 학생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집시법으로 징역을 한번 살게 되었고 그 뒤로 노동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으로 한 번 더 징역을 살았다. 사회운동을 하다가 찾은 첫 번째 직장이 월간 말지였고, 그 이후 한 번 옮긴 직장이 현재의 한겨레신문사이다. 지난 세월의 삶 내내 비록 운동 전선에서 한길로 올곧게 살지는 못하였지만, 학생운동 시절 가지게 된 생각과 가치관에 맞추어 살려고 노력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그만큼 그 시절 학생운동

이 내 인생에 미친 영향은 강렬하고 충격적이었다.

우리는(78학번에서 83학번) 소위 집시세대로 불린다. 2005년도 출간된 긴급조치 시대 학생운동사에 이어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책으로 낸다니 새삼스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다. 다만 앞의 선배 세대에 이어 우리 시대의 기록을 남겨 놓는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 세대에 이어 다음 전대협 세대에게 이어지는 연속 사업으로서도 책

임이 있는 일이기에 기억을 더듬어 향후 역사가의 자료 정리에 보탬이 되는 기록 정도를 적어 보고자 한다.

서울시립대는 60년대 한일협정 반대투쟁 이후 학생운동이 단절되어 70년대 내내 학생운동의 불모지였다. 79년에서 82년까지는 새롭게 조직을 만들어 학생운동에 대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기에 재미있는 야사도 관심 갖고 돌이켜볼 사건도 거의 없는 편이다. 그래서 그 시절 시립대 학생운동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특히 세월이 가면 추억과 사람만 남게 되고 더 세월이 가면 기록만 남는 것이 역사이기에, 그 어려웠던 시절 함께한 선후배 동지의 이름이라도 남겨놓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되어 책 전체의 맥락과 동떨어지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써보려고 한다.

갯빛 황량함과 시대의 무물함

70년도 마지막 해인 1979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나에게 지금까지 남은 우리 대학의 첫 번째 이미지는 갯빛 황량함이다.

당시 정식 교명은 서울산업대학으로 서울시립농업대학에서 전환된 지 5년 밖에 되지 않은 단과대학으로서 입학 정원이 400명 정도의 작은 학교로 모든 면에서 아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서울시립대학으로 학교명이 개정된 것은 1982년 3월). 학장은 육사 출신이며 장군으로 예편한 분으로 알려져 그 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거부감부터 느껴졌다. 고등학교에 이어 학점으로 강제화된 교련실습과 교련복, 학도호국단, 초라하고 우중충한 교정 등 대학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충만하였던 나에게 갯빛 황량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리라. 또한 당시 입시제도에서 후기 대학이었던 우리 대학은 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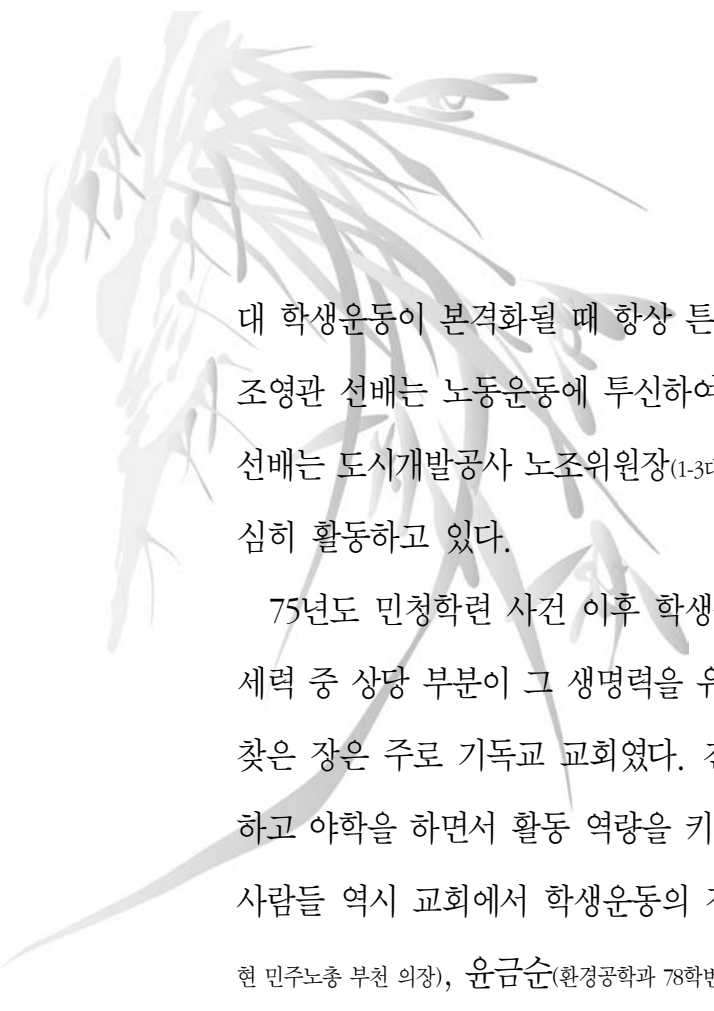
립이기에 서울 소재 대학 중 등록금이 국립대보다 싼 유일한 학교이었다. 전기 대학 입시에서 두 세 차례 실패한 성적 우수자들 중 집안이 가난한 학생들이 등록금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많이 입학하였지만, 학생들은 입시 실패라는 자괴감에서 쉽게 탈피하지 못하였고, 학교 당국과 교수님들 역시 학생들에게 용기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여 학교의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었고, 서클 등의 학내 학생 활동은 전반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유일한 활력적(?) 요소는 여기저기서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ROTC 생도들의 경례 소리뿐이었다.

학교의 잿빛 황량함이 시대의 우울함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입학 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고향인 인천에서 시작한 작은 사회과학 서클에서 학습한 덕에 독재 정권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유신헌법, 긴급조치, 학도호국단 체제 등 다양한 장치가 학교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시대적 우울함에 맞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시립대에서는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나를 우울하게 하였다.

학생운동의 불모지에 민족화의 씨앗을 심은 사람들

그러나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 학생운동의 불모지인 서울시립대학에도 민주화의 씨앗을 심고 있었던 선배들이 있었다. 78년도에 입학한 선배들 중 5명이 각기 또는 같이 외부 교회에서 세례 받은 학생운동의 정신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그전에 자생적으로 문학 서클인 청문회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선배들이 있기는 하였다. 권오병(도시행정학과 74학번) 조영관(경영학과 76학번) 박두성(경영학과 77학번) 장달수(건축과 78학번) 등의 선배들은 말 그대로 순수하고 시대 비판적이기는 했지만 이미 성숙해가고 있었던 학생운동 또는 민주화운동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들 선배들은 시립



대 학생운동이 본격화될 때 항상 튼튼한 버팀목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중
조영관 선배는 노동운동에 투신하여 지금도 노동자 시인으로 살고 있으며, 장달수
선배는 도시개발공사 노조위원장(1-3대)으로 활동하였고 지금도 노동운동을 하면서 열
심히 활동하고 있다.

75년도 민청학련 사건 이후 학생운동이 학내에서 지독한 탄압을 받아 학생운동
세력 중 상당 부분이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이
찾은 장은 주로 기독교 교회였다. 진보적인 교회의 대학생회와 청년회에서 학습을
하고 야학을 하면서 활동 역량을 키워가고 있었다. 시립대 학생운동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 역시 교회에서 학생운동의 정신을 배운 사람들이었다. 권오광(환경공학과 78학번,
현 민주노총 부천 의장), 윤금순(환경공학과 78학번, 현 전국여성농민회 회장), 박태식(건축공학과 78학번), 이광재
(도시행정학과 78학번), 진방주(화학공학과 78학번, 현 예수교장로회 목사) 등 5명이다. 이들이 2학년 때인
79년 1학기에 함께 모여 시립대학에서 학생운동의 조직적 씨앗을 뿌리기로 합의한
후 학내 서클에 가입하여 활동하기로 하였다. 박태식은 당시 가장 조직력인 약한 공
산주의연구소라는 서클을 선택하여 의도적으로 가입하여 서클 명을 민족문제연구회
로 개명한 후 후배들을 모집하여 사회과학 학습을 시키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윤금순은 기독교학생회에 가입하여 활동을 시작하지만 기독교학생회의 보수적
성격으로 본격 활동은 조금 더 지체된다. 민족문제연구회가 시립대 최초의 학생운동
조직이며 뒤 이은 기독교학생회와 더불어 시립대 학생운동의 조직적 기초가 된다. 79
년도의 학생운동 씨 뿌리기는 작은 싹을 키우기는 했지만 아직은 미숙한 채로 80년
서울의 봄을 맞아 투쟁을 주도하면서 성장해간다.

민족화의 봄과 학생운동 조직의 성장

10·26은 예기치 않게 다가왔기에 그 당시에는 그 사건이 갖는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10·26은 18년 유신 군부독재 체제의 종말이자, 12.12 쿠데타와 서울의 봄 그리고 광주 항쟁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격동의 시대를 예고하는 신호탄이기도 하였다.

80년 3월 개학 이후 정국은 혼미하였지만 각 대학에서는 학원자율화 투쟁이 한창 진행되었다. 75년도 긴급조치로 해체된 학생회가 각 대학별로 속속 복원되었는데, 시립대학에서도 4월 15일 학생 직접 선거로 총학생회장을 선출하여 총학생회를 구성하고 이 후 서울의 봄 투쟁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 때 학생운동 세력은 조직 역량이 너무 적고 대중성이 부족하여 이광재가 출마하였지만 실패하였다. 대신 5월 본격적인 서울의 봄 투쟁 때는 학생운동 세력이 그동안 익힌 운동가요와 조직력을 활용하여 투쟁을 이끌었다. 5월 2일부터 시작된 ‘민주화 투쟁기간’ 동안 시립대 전체 학생 수 2,000여 명 중 절반이 넘는 1,000여 명이 연일 참여하는 등 시립대 학우들의 참여도와 투쟁의지가 높았다. 역사적인 ‘서울역 회군’이 있던 5월 15일에도 오전 학내 집회를 마친 우리 대학 학생 700여명은 교문을 막고 있는 경찰 병력을 밀치고 청량리에서 신설동으로 다시 동대문에서 종로를 거쳐 서울역으로 겹겹이 가로막은 저지선을 뚫으며 거침없이 달려 나갔다. 서울시립대 학우들은 서울역 앞에 모인 30만 명의 군중의 일원으로 용감히 역사적 소임을 다했지만 결코 주도적이지 못하였기에 회군 이후 이틀 뒤 선포된 휴교령에 의해 학교 앞에 진주한 탱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야 했다.

80년 서울의 봄 투쟁으로 시립대 학생운동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였지만 투쟁의 자신감을 획득하고 조직력을 강화하며, 학교 외부에서 사회과학 학습을 하던 역량을

학내로 결집시킬 수 있었고 학우 대중들에게 지도력 있는 세력으로 인정받는 등 나름대로 커다란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투쟁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진 80년 5월 광주에서는 처절한 민중항쟁이 전개되었다. 소위 ‘광주사태’로 알려진 광주민중항쟁은 처음에는 그 진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여름이 되면서 조금씩 소문으로 부분적 진상이 알려지게 되었다. 계엄 포고령이 있던 5월 17일에서 정확히 110일이 흐른 9월 5일에 마침내 휴교령이 풀렸다. 광주의 진실은 조금씩 더 정확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전두환 신군부 정권의 집권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0·26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 12·12 신군부의 쿠데타, 서울의 봄, 광주민중항쟁, 전두환 신군부 집권 성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음모의 과정이 그제야 분명히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광주의 진실은 5월 15일 서울역에서 회군한 이후 아무것도 모르고, 광주의 투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 채 그냥 조용히 지내던 우리 모두에게 치명적인 아픔과 원죄의식을 심어 주었다. 80년대 학생운동은 광주의 아픔과 광주에 대한 원죄의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정국은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고, 학교는 형사들의 감시의 눈길로 가득 찼다. 학생회는 진작 폐기되고 다시 학도 호국단이 부활하였으며, 서클 활동이나 학내 집회 역시 철저히 통제되었다. 전국적으로도 80년도 가을의 투쟁은 많지 않았고, 설사 있었다고 해도 신군부의 언론 통제로 인해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80년 가을 10월 7일 시립대학의 첫 번째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 주역은 민족문화연구회를 주도하던 박태식(건축공학과 78학번)과 한동욱(무역학과 79학번) 박영인(전자공학과 80학번)이었다.

10월 7일 오후 5시경 박영인은 도서관에서, 박태식과 한동욱은 강의실에서 ‘살인마 전두환을 타도하자’라는 유인물을 뿌리며 학생들을 상대로 선전전을 벌였다. 다행히 이날은 모두 검거를 면하였다.

다시 일주일 뒤 이공회관 옆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는 중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에게 한동욱이 검거되었다. 검거하고 경비실로 끌고가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폭력을 행사하니 학생 대중이 분노하여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태식은 본관 입구에서 다시 한번 유인물을 뿌리며 광주항쟁의 진실과 전두환 정권의 타도를 주장하였고 50여명이 참여하는 작은 집회가 이루어졌다. 곧바로 경찰 닭장차가 들이닥치고 집회는 해산되었고 박태식은 검거되었다.

박태식과 한동욱은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받았지만 다음해 포고령이 해제되어 민간 법정으로 이관 된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한동욱은 형집행정지로 박태식은 징역 3년 징행유예 2년으로 석방되었다. 1학년이었던 박영인은 강제 징집을 당했다.

80년 10월 시위는 80년 광주의 진실과 전두환 정권의 실체를 폭로하지 않을 수 없는 시립대 학생의 분노와 투쟁의지를 보여준 행위였으며, 향후 시립대 학생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투쟁이었다.

조직적 준비

81년 1학기는 학생운동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한 해이다. 특히 2학기부터는 전국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탄압이 거셀수록 학생들의 투쟁 양식도 치열해지고 그 결과 다치고 부상당한 동지들이 많았으며 시위 주동지는 거의 현장에서 검거되어 무조건 구속되는 살벌한 분위기였다. 이제 시위를 주도하거나 학생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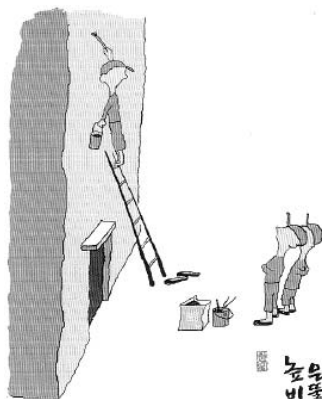
조직에 참여 한다는 것은 구속을 각오하는 종교적 결단과도 같은 뜻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81년도 서울 시립대의 학생운동은 겉으로는 조용하였다. 아직 조직이 취약한 상태였기에 조직을 추스르고 확산해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던 시기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학생운동 조직은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민족문제연구회와 기독교학생회 2개 정도의 오픈 서클 중심으로 시작된 조직화 작업은 탈출반, 카톨릭학생회, 청문회, KUSA 등으로 확산되었고 지하 서클도 3-4개가 조직화되었다. 오픈 서클 중심의 서클 연합회를 장악하여 소비적이고 무비판적인 학내 축제 보이콧 운동을 벌이면서 학생 대중에 대한 선전을 강화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운동 지도부의 역할을 하는 학내 조직 간의 논의 구조도 형성해나갔다.

본격 투쟁의 길

82년 되면서 학생운동은 투쟁론과 준비론의 논쟁을 정리하고 본격 투쟁의 길로 접어들었다.

준비론은 강고한 군부 독재세력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민중과 함께 해야 하고 민중과 함께 하기 위해선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에 학생운동 출신자들이 투신하여 민중들을 조직하여 그들과 함께 본격적인 투



높은 곳에서 일할 때의 어려움은 글씨가 바들지
비록 어렸는지 알수없다는 사실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런히 물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신재

쟁을 준비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를 위해서 시위 등으로 구속되어 신분이 노출되면 차후 노동 현장과 농민 현장에 가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 이슈 중심의 투쟁을 통한 신분 노출을 자제하고 조직을 보존하면서 현장 이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리로 기억된다.

투쟁론은 학생운동의 본질적인 책임은 시기 시기 필요한 정치적 투쟁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운동의 성장 뿐 아니라 민중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당면 정치투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논리이다. 전두환 파쇼 정권에 대한 본질을 대중에게 폭로하고 민주화를 주장하는 것이 현 시기 학생운동에 게 주어진 책임이며 사명이라는 주장으로 기억된다.

시립대 학생운동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장기적으로 민중운동으로 투신을 준비하면서도 현 시기 주어진 투쟁을 방기할 수 없다는 조금 절충적인 입장이었다. 투쟁이 필요한 이유는 시립대 학생운동 조직 내부에도 있었다. 80년도부터 3년간 준비하고 확대해온 내부 조직의 훈련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투쟁적 행동이 필요했다. 사회과학적 학습의 심화만으로는 부족했다.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의 과감한 실천이 필요했다. 문제는 선부른 투쟁으로 간신히 키워온 조직이 무너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었으며 투쟁에 대한 내적 자신감 부족이었다.

당시 4학년이면서 학생운동을 이끌어 가던 임창훈(무역학과 79학번)과 나는 투쟁의 모범을 보여야할 압박감을 강하에 받고 있었다. 투쟁의 압박감을 심화시킨 것은 후배들의 잇단 구속과 강제 징집이었다.

10월 초 영등포 도시산업선교 주최의 원풍 노동자를 위한 기도회에 나갔던 조성호(화공학과 80학번)가 단순 참여임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시내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철저한 불심검문이 진행되었고 특히 기도회 등 집회 장소 주변은 더욱 심하였다. 82년 10월 7일 오후 두시 영등포 도시산업선교

회에서 열리는 원풍모방 노동자를 위한 기도회에 본인과 후배 7-8명이 함께 나가서 집회에 참여하고 치열한 가두 투쟁을 하다 학교에 왔는데 조성호 후배가 보이지 않았다. 알아보니 집회에 참여한 후 돌아오다가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렸는데 가방에 넣어 둔 유인물이 문제가 되어 구속되게 되었다. 이날 원풍모방 기도회 관련하여 4개 학교 총 4명의 단순가담자가 경찰에 연행되었는데 경찰은 이들을 주동으로 몰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모두 구속시켰는데 이는 단순가담자도 집시법으로 구속시킨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같은 사건으로 연행되었던 김문수(무역학과 81학번)는 강제 징집 당하였다.

조성호의 구속과 김문수의 강제 징집은 81년과 82년 가을까지 투쟁 없이 조용하던 시립대 학생운동을 투쟁의 방향으로 이끈 전기가 되었으며, 주저하던 나에게도 투쟁을 최종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본인과 임창훈은 11월에 학내 시위를 주도하기로 합의하고 준비를 하였다. 조직적인 학내 시위가 처음인지라 선전전을 통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 후 분위기가 성숙하면 본격 시위로 나선다는 2단계 전략을 세웠다. 조직의 보존을 위해 시위에 동참할 인원과 지원만 할 인원으로 나누어 준비하였다.

11월 1일 새벽 학내 강의실에 들어가 본인이 작성한 “시립대 반파쇼 민주화 투쟁선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 300여 장을 강의실과 서클룸에 나누어 뿌렸다. 광주의 진실과 전두환 군사독재의 본질을 밝히면서 투쟁만이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행동지침으로 당일 점심시간에 중앙 도서관 앞에서 모여 시위를 할 것이라 공개 선언하였다.

계획적인 투쟁이 별로 없었던 시립대에서는 당일 경찰의 비상경계가 펼쳐졌다. 당일 점심시간 상당한 학생들이 관심 있게 주시하면서 도서관 주위에 모였지만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시위도 하지 못하고 연행될 것이 뻔하였기에 분위기만 연출하고 의도적으로 시위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제 투쟁은 학생의 날인 11월 3일 감행하였다.

3일 12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임창훈이 사회과학관 4층에 플래카드를 내려뜨리고 메가폰을 들고 ‘살인마 전두환을 타도하자’ 구호를 외치면서 “불의에 대한 우리는 분노는 죽었는가! 시대인이여”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뿌리자 도서관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본인은 100여 명의 학생들과 노래를 부르면서 학내 시위를 하였다.

유인물은 1) 전두환 파쇼체제의 불법적 정권찬탈 반대, 2) 민중을 기만하는 경제정책 철폐, 3) 학원민주화 보장, 4) 민주노조 탄압 중지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학생의 적극적인 투쟁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위는 미리 준비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10분 만에 싱겁게 끝났다. 이 시위로 강병수와 임창훈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시위에 참가하였던 정현숙(영문학과 81학번)은 구류 12일 선고받았으며 박희정(경제학과 81학번)은 강제 징집 당하였다. 또 당일 청계천에서 이어진 노학연계 가두 투쟁에서 연행된 정기종(경영학과 79학번)도 강제 징집 당하였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시위였지만 11월 3일의 투쟁은 시립대 학생운동사에서 처음으로 조직적 준비와 논의 속에 진행된 투쟁이었으며, 향후 시립대 학생운동의 중심을 투쟁 중심으로 한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 투쟁이었다. 그리고 이 투쟁을 기점으로 서울시립대는 학생운동의 불모지라는 불명예를 벗어나 학생운동의 새로운 개척지로서의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하게 되었다.

나는 인생에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학생운동을 통해서 배우고 얻었다라고 생각한다. 세상을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관점,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휴머니즘,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 평생 함께 살 동지와 동지애, 조직을 만들고 일을 도모하는 능력을 배웠다. 또 세상과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배웠다. 앞으로의 인생도 학생운동 당시의 순수하고 치열한 맘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해본다.



88학동을 소개합니다

윤현중 | 행정학과 88학번, 88학번 동기회장

우리 학번은 1년에 한 두 번씩 1박2일 일정으로 야유회를 갖는다. 주로 원거리에 있는 동기들의 집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올해는 가까운 곳으로 하기로 하였다. 오가는 길 시간절약과 편리성, 보다 많고 다양한 참여를 위하여 시도해 보았다. 덕분에 선배들도 몇 분 같이 하며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산악회와 족구교류전도 할 수 있었다. 이번 야유회에는 88학번과 그 가족 19명, 민동산악회 11명, 기타 선배 2명 총 32명이 참여하였다.

우리 88학번 동기 모임 청학동(청년학생동맹)은 재학시절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학과별로 한 두명 씩은 다 있는 편이다. 모임의 정회원은 27명 정도 된다. 더 많은 회원이 있지만 평상시 소식을 전하고 지내며 회비납부를 하는 인원을 정회원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이면 학과별 소식, 선후배간 소식, 활동시절 얘기 등으로 밤이 새는 줄을 모른다. 매년 반복되는 얘기들도 있으나 얘기할 때마다 재미가 다른 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 우리 모임은 가급적 부부동반, 아이동반을 지향한다. 이번에도 부부동반 아이동반이 많아서 좋았다. 앞으로는 부인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우리 모임은 민동에서 모범이라고 자타가 공인한다. 우선 민동회비 자동이체자가 가장 많고 민동모임 때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다. 단결도 잘 된다. 올해에는 88학번 단독 축구팀도 창단하고 유니폼도 맞추었다. 썬데이서울과 경기하여 무승부를 이룰 만큼 단결심과 근성도 있다. 또한 최근에 창립된 민동산악회의 일원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연과 함께하고 선후배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회비납부를 민동자동이체와 연동시켜 놓아 회비납부율이 높아 재정이 튼튼하다. 때론 잔고가 민동 전체금액보다 높을 때도 있다. 다른 학번들도 민동회비와 자동이체를 연동시켜 놓는 방법을 권하고 싶다. 동기들 경조사시에는 10만원상당의 화환이나 화분, 선물 등을 회비로 기본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한때는 변화의 주역이었던 우리 학번,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의 주축이 되고자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고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치열함 속에서도 동기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사회의 발전을 고민할 줄 아는 88학번 청학동 멤버들 나는 그들이 자랑스럽다.





시대와 더불어 민동과 함께

서울시립대학교 민주동문회의 2006년 한해살이.

시간이 지날수록 튼튼한 뿌리위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나날이 발전하는 민주동문회의 지난 한해를 돌아봅니다. 거의 매달 공식적인 행사와 회합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비공식적인 모임들과 준비모임, 평가모임들이 진행되어 저의 수첩에는 거의 매주 동문회와 관련된 일정들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회원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4·19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동문만남의 날, 3개교 축구대회, 여름한마당 등의 다채로운 행사 진행과, 홈페이지 개편, 회비납부회원 확대, 주소록수첩 제작 등 내실을 다지는 사업들, 그리고 축구모임과 산악회의 든든한 활동과 정감 오고가는 동기모임 등, 이루 셀 수 없는 무수한 사업들이 진행된 한해였습니다.

회원여러분의 기대만큼 충분히 만족시켜드리지 못한 부분 또한 많을 것이나, 작년의 모습보다 올해의 모습이, 그리고 내년의 모습이 더 낳을 것이라는 약속과 확신 속에 올해 한해를 정리해봅니다.

올 한해 많은 관심과 참여 보여주신 동문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에서



세종대학교 민주동문회 사무국 일년 낚이

- 2월 27일 사무국 워크샵
주요안건 : 2005년 결산 및 2006년 사업계획 / 사무국 힘다지기
- 3월 2일 1차 운영위원회 개최
주요안건 : 2005년 결산 및 2006년 사업계획 외
- 4월 11일 2차 운영위원회 개최
주요안건 : 2006년 사업계획, 3개교 축구대회, 4·19 민주묘지참배 외
16일 4·19 민주묘지 참배 및 북한산행(산악회, 경희대-외대 민동 연합)
- 5월 3일 신임 총학생회 간부들과의 간담회
7일 축구모임 오마이뉴스 시민사회단체 축구대회 참가
19일 민주동문 만남의 날(모교 대동제 주간)
- 6월 8일 3차 운영위원회 개최
주요안건 : 여름한마당 준비위원회 구성, 회비납부회원 확대운동,
홈페이지 개편사업, 3개교 축구대회 외
24일 시립대, 경희대, 외대 3개교 축구대회 개최(외대 대운동장)
- 8월 17일 4차 운영위원회 개최
주요안건 : 여름한마당 기획안 검토, 회비납부회원 확대운동,
홈페이지 개편사업, 장학위원회(가)구성 외
- 9월 3일 2006 여름한마당 개최
28일 5차 운영위원회 개최
주요안건 : 여름한마당 평가, 하반기 사업계획, 홈페이지 개편사업 외
- 10월 13일 산악회 금강산 등반 및 북동포 돕기 모금 기부
- 11월 16일 6차 운영위원회 개최
주요안건 : 송년의 밤 준비, 주소록수첩 제작
- 12월 15일 2006 정기 총회 및 송년의 밤 개최



김종백(국사90, 신지누리대표이사, 본회사무국장) (사)한국신지식인협회 사무총장 선임
본회의 사무국장 김종백동문(국사 90)께서 지난 4월 전국신지식인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사)한국신지식인협회(구)한국신지식인연합의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에는 MBC 뉴스투데이에서 설선물과 관련된 코너에 소개되고, 9월에는 KBS2의 싱싱일요
일에 방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신지누리는 지난해 일본 등 해외진출, 옥션, GS estore, 인터파크등과의 온라인 제휴, 김
종백 동문의 신지식인 지정 등 번창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지누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 최동민(법학88) 동문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대외협력팀장 발령

한국노총 공공서비스노련의 정책실장으로 맹활약을 펼치던 최동민(법학88) 동문이 지난
해 연말 건설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대외협력팀장(4급상당)으로 발령되었다고
합니다. 동문들의 마음을 모아 거듭 축하드립니다. 많은 발전있으시길 바랍니다.

☑ 안영배(도행81) 동문 국정홍보처 차장 임명

본회의 회원이신 안영배(도시행정, 81) 동문께서 지난 3월 18일 국정홍보처 차장(1급상당)에
임명 되셨습니다. 안영배 동문은 월간 '말' 편집차장, 한국기자협회 편집부장, 미디어오늘
편집국장 등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동문들의 마음을 모아
거듭 축하드리며 많은 발전있으시길 바랍니다.

☑ 신희중(법학90) 동문 모교 총동창회 사무국장 승진

수년째 모교 총동창회의 총무로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희중(법학90) 동문이 3월 29일 개최된 “총동창회 2006년도 상반기 정기이사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 되었습니다. 더욱 더 왕성한 맨파워로 동창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 정현태(건축89) 동문 교수 임용

그동안 7년여동안 미국의 명문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유학하던 정현태 동문이 올 7월부터 미국 네브라스카의 주립대 메인캠퍼스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그동안 타향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동문 선후배님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대(도행83)동문 국무총리실 정무2비서관 발령

심상대(도행 83, 열린우리당 운영관리팀장) 동문이 어제 날자로 국무총리실 정무2비서관(별정직 2급상당)으로 인사발령되었습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 조관익(재료94) 동문

2월 18일(토) 순천에서 장가를 갔습니다. 신부는 영문 94 전병은 동문 동생... ㅎㅎ~~ ^^*
주례는 민주동문회 강병수 회장님이셨습니다. 행복하세요.

☑ 신지해(화공97) 동문

민동 행사를 위해 많은 일을 했던 신지해 동문이 지난 3월 18일 수원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신랑은 민중시대 전자전기 92 공유식 동문. 행복하세요.

☑ 전환영(법학87) 동문

법무사로 활동중인 NO(2)총각 전환영 동문이 결혼하였습니다. 법무사 전환영(법학87) 동문이 부산 아가씨를 만나 지난 4월 22일 부산에서결혼을 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 이정훈(전통94) 동문

31대총학생회 정보통신부장을 지냈고, 지금은 하이닉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훈(전산통계·94)동문이 9월 9일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부는 신랑보다 5살이나 어린 음악대학원생이라는. 행복하세요.

많이 많이 축하합니다.



☺ 금다둥이 양다둥이 ☺

☑ 김은선(재료93), 김성호(토목93) 동문 득녀

3월 11일 늦은 밤 3.4kg의 건강한 딸을 얻었다고 합니다. 보조개가 꼭 들어가는 예쁜 미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건강하게 자라길 기원합니다.

☑ 박현섭(법학89) 동문 득남

로위더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현섭(법학89) 변호사가 지난 3월 득남을 했습니다. 참고로 박현섭 동문은 부인이 전북 고창군 출신으로 90년대 초반 모교 수학과 등이 농활을 들어갔던 마을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때의 인연이 지금은 부부로 맺어져 행복한 한 가정을 꾸린 것입니다. 거듭 축하드립니다.

☑ 이명선(화공·90), 김은숙(법) 동문 부부 득녀

이명선(화공·90)동문과 김은숙(법)동문 부부가 7월 12일 결혼한 지 5년만에 드디어 아리따운 따님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동문 여러분들, 많이많이 축하해주시고... 이쁘고 건강하게 자라길 빌어 주세요~~~

☑ 권재욱(국사91) 동문 득녀

권재욱(국사91) 동문이 결혼 7년만에 드디어 아빠가 되었습니다. 너무 너무 축하합니다. 지난 8월 20일(일) 자연분만으로 딸을 순산했고,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고 합니다. 한편 본인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밤마다 무지 노력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권 동문은 그동안 벼룩시장 전주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얼마 전에 벼룩시장 본사의 마케팅 기획파트 파트장으로 발령이 나서 서울로 입성 했다고 합니다.

두루두루 축하합니다.

부음

- 강호동(국사90) 동문 부친상 - 1월 12일
- 배경석(회계88) 동문 부친상 - 2월 14일
- 김진수(회계81) 동문 장인상 - 3월 5일
- 김동중(전산통계85) 동문 장인상 - 3월 14일
- 이수연(수학90) 동문 본인상 - 3월 17일
- 유한필(도공84) 동문 모친상 - 4월 19일
- 이광재(도행78) 이민재(건축82) 동문 조모상 - 4월 30일
- 이선규(법학81) 동문 부친상 - 5월 10일
- 양병웅(영문84) 동문 부친상 - 5월 22일
- 정지환(영문84) 동문 부친상 - 5월 30일
- 박영재(경영87) 동문 장인상 - 7월 19일
- 한태희(환공84) 동문 부친상 - 9월 1일
- 류용전(행정84) 동문 모친상 - 11월 3일
- 김행석(환공85) 동문 부친상 - 11월 16일

한달 1만원으로 민주동문회를 품안에

아름다운 인연, 그리고... 인생의 길을 아름답게 밝혀가는 든든한 길동무!

‘민주동문회’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힘이 되어 주세요.

○ **여러분이 내시는 동문회비는!** 각종행사준비 및 소식지 발행, 장학사업, 소모임 지원 등 민주동문회의 활성화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즐거운 보람, 동문회비 CMS 납부에 많은 동문의 참여를 바랍니다.

○ **새롭게CMS 회원이되시고자한다면?** 개인의 은행계좌번호, 예금주와 주민등록번호, 월회비 약정액을 사무국에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팩스 (3141-3120), 메일(uos@uos.or.kr)로 보내시면 됩니다. 월 회비는 1만원 이상이고,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 **CMS 이체시스템은?** 금융결제원과 일정자격을 갖춘 단체(기관)와 협의하여 회원의 은행계좌로부터 매월 이체일에 자동으로 회비가 이체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은행에 가서 직접 자동이체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는 한편 민동회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동CMS 회비는 기부금에 해당되어 연말에는 소득공제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현재 우리 민동은 전민동에 지부로 가입되어(현재20여 학교의 민동가입) 일정액의 수수료와 보증금을 납부하고 CMS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CMS 회비납부를 해 주시는 동문께** 회비납부 운동의 취지에 적극 협조하여 정기 회비를 꼬박꼬박 내주시는 동문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정기출금일(매달5일)쯤 인출통장의 재고를 확인하여 출금약정액이상 잔고를 유지하시면 중복출금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립니다!!!

하나!

통장에는 '민주동문화비출'로 출금확인 되어있습니다 정기출금은 매달 5일이며, 잔고부족 계좌에 대한출금은 15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혹시 그동안 출금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둘!!

올해 안에 회비납부 회원 200명 확보 운동에 힘을 모아 주세요. 동문들의 열띤 호응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동문들이 회비납부 신청을 해 주셨고 성실히 납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울러 정기회비 납부회원 배가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사정으로 인해 신청을 못하셨거나, 내용을 모르는 동문이 계시다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

특별회비, 장학기금을 내시고자 하는 동문께 정기회비 납부가 여의치 않거나, 특별회비와 장학금을 내고자 하시는 동문께서는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예 금 주: 김성호

계좌번호: 662002-01-388101 국민은행

문의 : 전화 3141-3114 / 회장 강병수 011-336-7815

사무국장 김종백 016-288-7188 / 사업팀장 김성호 011-9936-6605

✓ www.uos.or.kr

바로 민주동문회의 홈페이지입니다. 사는 이야기, 동문동정, 알고 싶은 일 등 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동문 여러분의 곁에 따스한 동지
가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 **민주동문회에서...**

동문여러분의 애사에 근조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동문께서는 언제라도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